논어 12편 안연 8장 · 원문·풀이

棘子成曰：「君子質而已矣，何以文爲？」子貢曰：「惜乎，夫子之說，君子也，駟不及舌！文猶質也，質猶文也；虎豹之鞟，猶犬羊之鞟。」

독음 · 극자성왈 군자질이이의 하이문위 자공왈 석호 부자지설 군자야 사불급설 문유질야 질유문야 호표지곽 유견양지곽

쉬운 풀이(요약) · 바탕만 있으면 꾸밈은 필요 없다는 말에 자공은 무늬를 벗긴 호랑이와 표범 가죽이 개나 양의 가죽과 같아진다며 바탕과 형식의 조화를 강조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棘 가시나무 극 극 / 子 아들 자 / 成 이룰 성 성 / 曰 가로 왈

君 임금 군 / 質 바탕 질 질 / 而 말이을 이 / 已 이미 이 이

矣 어조사 의 / 何 어찌 하 하 / 以 써 이 이 / 文 무늬 문 문

爲 할 위 / 貢 바칠 공 공 / 惜 아낄 석 석 / 乎 어조사 호

夫 지아비 부 부 / 之 갈 지 / 說 기쁠 열 / 也 어조사 야

駟 사마 사 사 / 不 아닐 불 / 及 미칠 급 급 / 舌 혀 설 설

猶 어미 원숭이 유 유 / 虎 범 호 호 / 豹 표범 표 표 / 鞟 무두질한 가죽 곽 곽

犬 큰 개 견 견 / 羊 양 양 양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